

내가 바라는 협회의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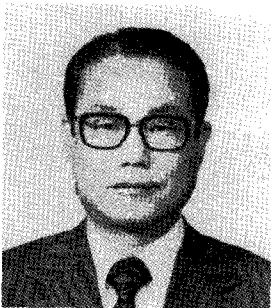
19 65년에 시작해 5년마다 실시한 결핵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감염률, 유병률, 균양성률 등은 25년전에 비해 모두 거의 1/3~1/4로 줄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25년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했을 때 20명에 1명의 유소견자, 106명에 1명의 균양성자가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56명에 1명의 유소견자, 416명에 1명의 균양성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며, 따라서 달라진 현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결핵관리의 방법과 개념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외국의 보도가 있다. 결핵의 호전경향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한동안 결핵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이제와서 반사적으로 늘기 시작한 결핵때문에 당황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핵관리의 양상이 항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즉 변화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만은 항상 구상하고 세우고 있어야 한다.

1954년 미국의 전통있는 결핵교육기관인 「트루도우결핵학교」는 그 해 43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이어서 결핵의들의 「메카」라고 할 「트루도우요양원」도 연구기관인 「사라낙 연구소」만을 남기고 역시 문을 닫았다. 이유는 그 나라 결핵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또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원치료로 잘 치유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의 의의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랜동안 그 나라 결핵학회로 전통을 자랑하던 「트루도우학회」도 그 이름을 「미국흉부학회」로 바꿨다. 그리고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결핵협회」도 그 이름을 「미국폐협회」로 바꾸어 활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기호/코오롱 스포렉스의원장
대한결핵협회 이사,
연세대 명예교수

나의 제언

세계적인 결핵연합기구인 「국제항결핵연맹」도 80년대 말 그 이름을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으로 바꾸고 나섰다.

가장 연조가 긴 국내 학술지의 하나인 결핵학회의 기관지 「결핵」도 그 이름을 「결핵 및 호흡기」지로 바꾼지 이미 오래며, 학회 이름도 수년전부터 「결핵 및 호흡기학회」로 고쳐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천하는 사회상을 보면서 나는 나름대로 우리 결핵협회도 이제는 무엇인가 장래를 위한 탈피와 도약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만일 협회가 변천하는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만연히 현상에 머문다고 하면 그 활동의 영역은 점점 더 좁아져 새로운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물론 결핵을 발판으로 출발한 우리 협회이긴 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결핵과 관련이 깊은 다른 폐질환 등을 대상으로 그 분야를 넓힐 수 있으면 넓혀야 한다. 그리고 호흡기질환의 가장 큰 적인 흡연의 해를 계몽하는 금연운동에도 적극 참가할 태세를 갖춰야한다. 더 나아가 흡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날로 사회적 각광을 받고 있는 폐암의 예방 또한 사업의 주요목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결핵협회의 발전적인 변모는 협회 자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재 활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학회 산하의 많은 결핵전문인들의 활동분야를 개척 해 주는 이중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날로 호전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결핵사정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본연의 현실적인 시책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변천하는 세계의 추세에 발맞춰 결핵을 발판으로 장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비약하는 준비와 태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 변천하는 세계의
추세에 발맞춰 결핵을
발판으로 장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비약하는 준비와
태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